

# 출판계에도 '빠 깎는' 구조조정 바람

대량해직·임금삭감 등 군살빼기 백태... 합리적인 출판풍토 정착계기 돼야

IMF 엄동설한에 출판계에서도 빠를 깎는 구조조정 수술이 한창이다. 국가경제의 급작스런 경색에 따라 사업다각화, 시장선점을 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규모 출판사들이 대대적으로 군살빼기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인력의 대량해직과 임금삭감, 그리고 조직의 축소개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편집인력의 대량해고

먼저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발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형 출판사들이 발빠르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아동전집물과 실용도서 개발에 주력해온 ㅅ출판사는 지난해 12월말 퇴직희망자에 한해 사표를 제출받아 편집개발인원을 50% 줄였다. 문화비평잡지를 폐간하고 새롭게 창간한 컴퓨터그래픽 잡지도 분리독립시켰다. 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으로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연월차·생휴수당을 폐지하고 상여금도 300% 삭감했다.

유통·방송·신문·학습지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ㄷ출판사는 지난 연말에 이사진 2명을 해직시키고 직원 5명을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켰다. 본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1주일에 1번씩 현장 파견근무를 정례화했다. 앞으로 인위적인 인원축소 없이 자연감원을 채택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시키고 출판중수는 작년의 80%선으로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온 또다른 ㄷ출판사는 지난달에 전직원으로 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각 직급에 따라 1개월에서 5개월치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편집부와 전산실 직원을 중심으로 인원조정이 이루어졌다. 백과사전팀과 단행본사업팀의 만화팀을 해체하고 잉여인력은 타부서에 흡수통합했다.

유통·신문·잡지·뉴 미디어 사업 등으로 경영을 다각화해온 ㅁ출판사는 지난달 말 계열사 중의 하나인 ㅂ시스템을 해체했다. 판매지원부서만 출판사에 일부 통합하고 나머지 인원은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사직시켰다. 지난달에 두개의 잡지를 휴·폐간하고

출판사들이 군살빼기를 서두르고 있다. 대량해직과 임금삭감, 조직의 축소개편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몇몇 출판사의 경우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단발적인 위기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성종합잡지의 창간계획도 유보했다. 잉여인력들은 타부서로 재배치하고 연월차수당 대신 토요일휴무제로 대체했다.

아동전집물·교과서·학습지·참고서를 만드는 ㄱ출판사는 지난해 말 전직원의 20%를 감원하고 임금도 20% 가량 깎았다. 백과사전팀이 해체되고 그 동안 분리되어 있던 아동출판부서가 본사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은 타부서에 재배치되었다. 오는 3월에 창간되는 초등학생용 학습지부서는 독자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몸집을 불리던 학습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각 학습지 출판사들은 활로찾기의 일환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에 고등학생용 학습지를 창간하는 ㄴ출판사는 지난해 12월말에 직원대표와 경영진 사이의 협의를 거쳐 전체직원의 50%를 줄였다. 특히 편집부서와 전산실의 기혼여성고임금 직원을 대상으로 감원이 이루어졌다. 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1개월치 임금이 더 지급되었다. 초등편집부와 중등편집부가 통합되고 임금과 상여금은 동결되었다.

고등학생용 학습지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 한순간에 대형출판사로 자리잡은 ㄷ출판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결제와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이 늦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들에게 대한 원고료 지급도 지연되고, 필자와의 협의를 거쳐 원고료를 인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인력구조는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자연감원으로 가다를 잡았다.

교과서와 참고서개발에 주력해온 ㄱ출판사는 지난해 말 전직원으로 부터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후 전화로 해직자를 개별통지하는



출판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방식으로 40명을 해고했다. 해직자 전원이 편집개발부원이었고, 살아남은 직원들은 연말 상여금 50%를 자발적으로 회사에 반납했다.

대형 단행본출판사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개의 여성잡지와 디자인 전문잡지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ㄷ출판사는 광고물량이 30% 감소하고 어음할인이 어려워지는 등 재정압박이 심화되자 전직원의 30%를 감원했다. 이들 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3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했다. 임금도 상여금을 200% 낮추는 선에서 삭감했다. 잡지영업과 단행본영업부를 통합하고 사무공간도 2개층에서 1개층으로 축소했다.

모기업 신문사에서 분리독립한 ㅅ출판사도 이달 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개본부 1실 20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5개본부 8개 팀으로 개편했다. 각 본부별로 소사장제를 도입하고 자율경영·책임경영·독립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표적인 학술·문학출판사인 ㅁ출판사는 수습편집부원 5명과 미술부 직원 1명을 해직시켰고 대형 전집기획도 보류시켰다.

## 단발적인 위기대응 비판

이러한 구조조정은 각 출판사들의 규모와 영업현황, 그리고 시장에측에 기초해 조직과 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몇몇 출판사들의 경우, 경영상태와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그대로 둔 채

단발적인 위기대응으로 인력과 임금을 축소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장치마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냥'은 고급출판인력의 고갈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출판계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은 하늘에 별따기다. 편집경력 6년의 한 여성실직자는 "실직 후 다른 출판사에 재취업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현재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재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출판문화협회 같은 공공단체에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상담창구, 게시판, 구인·구직 정보안내 등도 강구해볼 만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출현은 현재 출판계 최대현안인 도매상 부도와 원자재 수입폭등 등의 현안에 매달려 실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오히려 사설 민간기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꾸리고 있다. 한겨레문화센터는 오는 3월말경에 시작되는 출판강좌에 출판기획과 마케팅실무를 강화한 워크샵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푸른숲의 김혜경 대표는 "이번 출판계의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쳐 좀더 합리적이고 신중한 출판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 박천홍 기자